

겨울이면 냉동고...쪽방촌 사람들 겨울나기 두렵다

광주 동구 287세대 생활환경 조사

이진우(63)씨는 오늘도 안방에서 두툼한 패딩 점퍼를 벗지 못한 채 생활하고 있다.

한 겨울이 12월이 시작됐지만 보일러를 맘대로 틀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최근 따뜻한 날씨가 이어졌지만 다시 주말에 한파가 시작된다는 소식에 이씨는 벌써 걱정이 앞선다.

13일 광주일보 취재진이 찾은 광주시 동구 대인동 이씨의 방은 고작 2평 남짓으로 한겨울임에도 불구하고 온기가 느껴지지 않았다.

달방에서 23년째 살고 있는 이씨는 "겨울 나기가 가장 힘들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옷풍이 심한데도 난방 보일러가 없어 냉골방에서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하며 겨울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설명이다.

이씨는 "비도 세고 춥고 불편하지만 임대아파트 등 다른 곳으로 이사갈 엄두조차 못 내고 있다"며 "월 67만원 기초생활수급비로 버티려면 월 20만원 쪽방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끝을 흐렸다.

인근 대인동의 다른 쪽방에서 만난 강성문(74)씨도 이불 없이 생활이 불가능했다. 방 안에서는 냉기가 사방에서 들어오고 바닥에서는 찬기운이 스멀스멀 올라왔다.

강씨는 "춥고 불편하지만 돈이 없으니 달리 선택지가 없다"고 말했다.

강씨가 거주 중인 쪽방은 단열이 안 돼 여름이면 찜통, 겨울이면 냉동고 마냥 한기가 쫓다. 침대 하나만 놓아도 방이 딱 차 바지 등을 데가 없는 탓에 강씨는 화장실 변기 옆에 휴대용 가스버너를 놓고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강씨는 단칸방에서만 17년째 겨울을 냈다. 강씨는 "한달 70여만원으로 사는 형편에 난방기구 하나 사려면 하루 한 끼 식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워진다"며 "물기도 올라서 맛있는 것 하나 먹어볼 엄두조차

식비 빼듯해 보일리는 엄두 못내 68.8%가 전기장판에 의지 쪽방 생활에 63% "건강 나쁨" 27% "극단선택 생각한 적 있다" 동구 "소외계층 대책 마련할 것"

못 낸다. 수급비나 노령연금이라도 10만원만이라도 올려 줬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말했다.

이씨와 강씨처럼 광주시 동구에서 거주하며 혹독한 쪽방 겨울나기를 하는 쪽방 거주민 열명 중 일곱명은 보일러조차 못 때는 등 힘든 겨울나기를 하고 있다.

동구는 최근 '쪽방촌 실태조사 최종 용역보고회'를 열었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광주시 동구 대인동 175세대, 계림1동 112세대 등 총 287세대의 쪽방촌 주민의 생활 환경을 조사한 결과다. 설문에는 총 160명이 응답했다.

조사 결과 쪽방촌 주민들의 45.7%가 겨울철 난방을 제대로 하지 못해 '춥다'고 답했다. 난방 기구로는 68.8%가 전기장판에 의지하고 있으며, 도시가스 이용자는 13.1%, 전기매널 10.0%, 기름보일러 3.8% 등이었다.

난방비 지출과 관련 67.5%가 '난방비를 내지 않는다'고 답했다. 10만원 이상 내는 경우는 3.1%, 5~10만원 10%, 2~5만원 10%, 1~2만원 5% 등으로 집계됐다.

쪽방 주거환경 관련 불편한 점으로 32.5%가 식사를 꼽았으며, 2순위로는 24.6%가 난방·누수·습기가 불편하다고 답했다.

불편한 주거 환경은 건강 문제로도 이어졌다. 본인의 건강 상태와 관련해 62.9%가 '나쁨' 또는 '매



13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여관에서 쪽방촌 거주민이 전기장판을 틀고 추위를 녹이고 있다.

우 나쁨'이라고 응답했으며, '좋은' 또는 '매우 좋음'은 6.2%에 불과했다.

평소 앓고 있는 질병이 있는나는 질문에 82.5%가 '있다'고 답했다. 질병 유형으로는 고혈압 39.4%, 당뇨 30%, 관절염 13.8%, 우울증 등 정신 질환 6.3% 등이었다.

최근 1년 이내 병원에 가지 못한 경험이 있다는 이들은 19.4%였으며, 이 중 71.0%는 경제적인 이유로 병원을 가지 못했다고 답했다.

가장 필요한 진료 서비스로는 26.9%가 '치과 진료'를 꼽았으며, 건강검진 16.3%, 정형외과 진료 11.3%, 약품 지원 6.3% 등 응답도 뒤를 이었다.

최근 1년 이내 극단적 선택을 생각한 적 있는나는 질문에 27.5%가 '예'라고 답했으며, 6.9%는 시

도까지 한 적 있다고 답했다.

설문 응답자 중 67.5%가 생계급여, 주거급여, 연금, 근로소득 등 포함해 월 소득 50~100만원 사이인 것으로 집계됐다. 100만원 이상 월 소득자는 21.9%에 불과했다.

주요 소득원은 60.6%가 정부보조(수급비)였으며, 근로활동을 하는 사람은 30%에 불과했다. 근로 활동을 못 하는 이유로는 60%가 '건강상의 이유'를 택했으며, '일자리가 없어서'라는 응답은 10%였다.

가장 필요한 생활비로는 71.3%가 '식료품비'를 꼽았으며, 의료비는 13.1%, 의류비 5.6%, 난방비 5% 등이었다.

동구는 노숙인지원시설 '광주 다시서기종합지원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쪽방촌 복도.

센터'와 연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동구 관계자는 "소외계층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건강검진,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지역 치료와 연계해 틀니를 무료 지원하는 등 도움을 주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식비 지원을 위해 지역 착한가게 이용 쿠폰을 보급하거나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와 연계해 종량 지원 계획을 세우는 등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글·사진=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한빛원전 2호기

지하 세탁실 화재

8분만에 진화...인명피해 없어

영광 한빛원전 2호기 내 지하 세탁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자체진화됐다.

13일 한빛원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10분께 한빛원전 2호기 내 세탁실 전기분전반에서 불이 났다.

한빛 원전내 초동소방대가 즉시 진화에 나서 8분여만에 진화가 완료 돼 불이 번지지 않았다.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불이 난 곳은 탈의실과 샤워실이 있는 건물 지하 용수탱크실로 한빛원전은 전력 과부하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소방은 현장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격벽 없는 버스서 또 기사 폭행 당해 '아찔'

광주광산경찰, 60대 입건 버스기사 노조, 격벽 설치 촉구

불친절하다는 이유로 광역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청은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운전자 폭행 등)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 40분께 광주시 광산구 한 정류장에 멈춘 광역버스 운전기사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있다. A씨가 승객을 태

우려 정착한 버스에 뛰어 올라 기사를 때리고 달아나는데 까지 3초밖에 걸리지 않았다. 버스기사는 4주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기사가 목적지를 확인하는 질문에 통명스럽게 대답해 화가 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해당 버스기사 노동조합 측은 오는 18일 나주 시청 앞에서 버스 내 격벽 설치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김대인 기자 kdi@kwangju.co.kr

침수 차량 보상한 보험사, 지자체 상대 구상권 청구 기각

집중호우로 승용차가 물에 잠겨 보험처리를 해준 자동차보험사가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

광주지법 민사24단독(부장판사 박원)은 A자동차보험회사가 담양군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3일 밝혔다.

보험 가입자 B씨는 지난 2020년 8월 7~8일 담양

에 내린 집중호우(597mm)로 인해 하천이 갑자기 불어나 주차해둔 자신의 차량이 침수되자 도로관리주체인 담양군에 피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자 A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A사는 차량침수피해를 입은 B씨에게 29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담양군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A사는 "도로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하천 범람의 사전 통제나 방수 등 안전에 대한 사전 관리를 부주의하게 해 침수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한 침수는 인정되나 영조물인 하천의 설치 관리에 대한 하자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전남도와 담양군은 집중호우 대비를 촉구하는 재난문자를 여러 차례 송출했다"고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중앙공원 특례사업 시공권 갈등 케이앤지스틸, 공무원 6명 고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시공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광주시 공무원들이 무더기 피소됐다.

13일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특례사업 참여 기업 중 한 곳인 케이앤지스틸이 광주시 공무원 6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박상배 케이앤지스틸 대표는 "케이앤지스틸은 최초 사업 참여사로 시행사(빛고을중앙공원개발·SPC)의 24% 지분을 가진 주주였으나, 불법적인 콜업션 등이 행해져 결과적으로 케이앤지스틸의 주식은 송두리째 사라져버렸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불법행위를 광주시가 묵인·방조한 것은 고의적인 직무유기 행위에 해당하며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수 목 장

삶의 마지막, 한 그루 나무가 될 당신을 기억합니다.